

보도설명자료 (’16. 8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’ 3년 후 은퇴?
(’16.8.23. 파이낸셜뉴스)

1. 기사내용

- ☐ 동해가스전 해양플랫폼이 3년 후 백수 신세가 될 처지
- ☐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올인하면서 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 개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
 -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여파 등으로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동해-1가스전은 ‘15년말 기준 플랫폼 설치비용(1,100백만불)을 포함 총 847백만불을 투자하여 1,850백만불의 매출을 올린 사업으로 플랫폼은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된 것이며, 설계수명의 약 80%를 활용하는 것임
 - 이에 더해, 동해-2가스전을 동해1가스전에서 사용된 해상플랫폼을 추가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더욱 높이는 것임
- ☐ 그동안 국내 대륙붕 탐사는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,
 - * 년도별 투자액(백만불) : (’12) 96 → (’13) 9 → (’14) 63 → (’15) 137
 - * 년도별 시추(공) : (’12) 1(8광구) → (’14) 1(6-1광구) → (’15) 1(8광구)
 -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탐사를 계속할 계획임(’16~’17 탐사계획)
 - 8광구(운영권자 : 호주 우드사이드社) 탐사 유망성 분석
 - 6-1광구 동부지역(운영권자: 석유공사) 시추 유망지역 분석
 - 6-1광구 남부지역(운영권자: 포스코대우) 시추 유망지역 분석 및 시추 검토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 (044-203-5140)
최영수 사무관 (044-203-5148)